캐릭터의 변신은 무죄. 스티커나 팬시 등을 돋보이기 위해 부수적인 요소로 활용되는데 그쳤던 캐릭터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명적인 매력으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은 캐릭터의 열풍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귀여운 것이 좋아! 세대불문 취향저격 캐릭터

01

02

03

04

05

이미지 출처

01_ 빙그레 캐릭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출처_빙그레 인스타그램
02_ 동원F&B 캐릭터 '다랑이'	출처_동원 인스타그램
03_ 빙그레 캐릭터 '투게더리고리경'	출처_빙그레 인스타그램
04_ 각종 광고를 섭렵한 대세 '펭수'	출처_빙그레
05_ 하이트 진로 '두꺼비'	출처_하이트 진로 인스타그램

펭수 비켜! 자체 캐릭터 개발 나선 기업들

최근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자체 캐릭터가 등판하고 나섰다. 교육방송 EBS의 캐릭터 '펭수'의 인기를 절감한 기업들은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러 나선 것이다. 캐릭터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브랜드가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특정 브랜드가 출시하는 기획 상품)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기업들의 자체 캐릭터 중에서는 빙그레가 지난 2월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인 '빙그레우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빙그레 왕국'의 왕위 계승자라는 콘셉트의 캐릭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는 순정만화 캐릭터 같은 생김새에 빙그레 제품을 온몸에 휘감은 모습으로 B급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빙그레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9만 명에서 빙그레우스 공개 후 15만 명으로 늘었다. 빙그레는 빙그레우스에 이어 호위단장인 '더위사냥', '올 때 메로나'를 활용한 '옹떼 메로나 부르쟝 공작', '끌레도르 열쇠공', '투게더리고리경' 등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활발한 캐릭터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업계도 캐릭터를 내세워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하이트 진로는 '진로 소주'를 재출시하며 추억 속 두꺼비 캐릭터를 소환했다. 커다란 눈망울에 앙증맞은 두꺼비의 모습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뉴트로의 상징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종합식품기업인 동원F&B는 지난 5월, 동원참치의 다랑어를 의인화한 자체 캐릭터 '다랑이'를 공개했다. 그간 펭수, 미니언즈, 뽀로로 등 기성 캐릭터를 통해 마케팅을 펼쳤던 동원참치는 자체 개발한 오리지널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두루 사랑받는 캐릭터

그렇다면 기업들이 캐릭터 마케팅에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콘텐츠IP의 사업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상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한국의 캐릭터 산업은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조 520억 원이던 캐릭터산업 매출은 지난 2018년 12조 2070억 원으로 증가했다.

동 보고서에 발표된 '캐릭터 상품군별 연간 구매 횟수' 부문을 보면 '식품·음료·의약품'군이 6.4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상품 매출 상승에 기여하며 긍정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펭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SPC삼립의 경우 '펭수빵'이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돌파했으며 빙그레가 펭수 스페셜 패키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붕어싸만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아울러 인기 캐릭터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세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초 EBS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펭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시청 연령층은 만 18~24세 20.6%, 만 25~35세 31.6%, 만 35~44세 28.7%, 만 45~54세 12.8%였다. 중장년층의 구독자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의미다.

대중에게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히는 캐릭터. 펭수처럼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